



08 대규모 산란계 단지 종합컨설팅

대규모 산란계 단지에 대한 기술진단 및 컨설팅 실시로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였다.

※ 경북 영주 동원양계단지 컨설팅 사례

－ 모니터링 → 문제발굴 → 문제에 대한 기술교육 → 기술투입 → 문제점개선

.....



성과

5개 분야 42개 항목의 정밀 진단으로 맞춤형 현장기술지원

정부는 양계산업의 현대화와 규모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994년부터 양계단지를 육성, 현재 전국에 25개의 대규모 양계단지가 있으며 산란계 전체 사육수의 25% 정도가 양계단지에서 사육되고 있으나 기술수준이 낮고 지속적인 질병발생 등으로 표준산란율보다 10~15%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. 따라서 대형 양계 단지에 시설, 환경분야, 사료, 물, 경영, 질병관리 등 농장 전 분야에 전문가를 투입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굴된 문제점은 매월 좌담회 형식의 농가 교육을 통해 농가의 기술변화를 가져왔다. 이와같이 양계단지에 적합한 맞춤형 백신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폐사율을 줄이고 산란율을 향상시켜, 2010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획득하는 등 종합컨설팅으로 기술개선 이전인 2008년도에 비해 종합기술을 투입하고 경영개선을 한 이후인 2010년도에는 마리당 53.6개의 계란을 더 생산하였다.

- 년도별 헨하우스 산란율 증가 : '08 (247.4개) → '09 (290.1개) → '10 (301개)



활용

공동브랜드 개발 및 신기술시범사업으로 확대

지속적인 컨설팅과 사료,약품, 자재 등의 공동구매, 무항생제 축산물인증, HACCP 인증을 토대로 기능성을 갖춘 공동브랜드 개발로 경쟁력 강한 양계단지로 성장시킬 계획이며, 신기술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4개 양계 단지에 종합컨설팅을 확대 할 계획이다.



컨설팅 협약



환경모니터링



모니터링 결과 발표



기술교육



무항생제축산물 인증



종합평가